東洋學 第90輯(2023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조선미술전람회와 김돈희*

유 지 복**

국문초록

김돈희는 근대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서예가이다. 그는 조선미술전람회가 시작된 1922년부터 서부가 존속된 1931년까지 줄곧 심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조선미술전람회 서부 심사원으로는 유일하게 1회부터 10회까지 전 심사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직을 유지하며 권부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큰 배경이 되었다.

지금까지 김돈희가 1910년 국권피탈 당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문서를 썼다고 전해져 그의 친일 전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어 왔다. 그의 친일 전력 시비로 인해 근대기 서단의 대표적 서예가로서 김돈희의 면모는 그동안 거의 묻혀 왔다. 본고에서는 김돈희가 조약문을 썼다는 그간의 전언이 사실인지 살펴보았고, 나아가 근대적 미술 개념이 도입된 전람회에서의 그의 영향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김돈희가 조약문을 직접 필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조약문과 김돈희의 필적을 대조해보았지만 김돈희가 조약문을 썼다는 근거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조약문 체결 당시 김돈희와 함께 대한제국 내각 문서과에서 근무했던 5인의 필적을 조사해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김돈희는 조선미술전람회 심사를 통해 김돈희 계파를 형성하였다. 특히 북송 황정견에 바탕을 둔 그의 서풍은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며 권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김진민과 손재형 등 국내의 전문서예가는 물론, 조선총독부와 재조선 일본인 고위층 인사였던 葛城末治와 宇野宗一 등이 김돈희 계열로 두각을 나타내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세력화는 결국 서단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동시에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차단하며 서풍의 다양성을 막아섰고, '서'를 전통이라는 견고한 틀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제어] 金敦熙, 尙書會, 조선미술전람회, 서예, 한일병합조약

목 차

Ⅰ. 머리말
Ⅱ. 조선미전 심사원이 되기까지 김돈희의 행적
Ⅲ. 김돈희의 조선미전 출품작 경향
Ⅳ. 조선미전에 미친 김돈희의 영향
Ⅴ.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8150).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 smrjc@hanmail.net

Ⅰ. 머리말

朝鮮美術展覽會(이하 '조선미전' 또는 '선전'으로 약칭)는 1922년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의 미술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람회로 1944년까지 23회 지속되었다. 조선미전은 일본 官展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 미술전람회로, 한국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방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도의 전신으로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1)]

조선미전은 조선총독부라는 국가 권력이 공인하는 작가 등용문이었고, 작가로서 출세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출세지향형 관변작가를 양산한 제도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20·30년대 미술인이 대거 참여한 미술활동의 총본산이었다. 처음에는 동양화, 서양화·조각, 서 등 3부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나, 3회부터는 동양화부에 포함되어있던 사군자가 3부로 편입되어 서는 단독 부문이 되지 못하고 서·사군자로 합쳐졌다. 이후 1932년 11회부터 서부와 조각부가 폐지되고 공예부가 신설되는 한편, 사군자는 동양화부로 편입되어 명맥을 유지했다.

일본에서는 서구의 '미술'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서예는 미술이 아니다'라는 논쟁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2)] 그 결과 1907년의 일본 관전인 문부성미술전람회로부터 '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3)] 이 논쟁은 조선미전에도 영향을 미쳐 총독부에서는 애초 서예를 배제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서화계 인사들을 관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를 3부에 넣어 조선미전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1926년 5회 전람회 개최를 앞두고 서부에 출품해왔던 李漢福을 포함한 동양화·서양화가들 중심으로 '서와 사군자는 素人(아마추어) 예술에 불과하다.'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며 조선미전에서 서·사군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시작되었고,[4)] 1931년 10회 전람회를 끝으로 결국 서부는 조선미전에서 배제된 채 그 막을 내려야만 했다.

지금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회화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서부에 관한 연구 역시 회화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선미전 서부의 개설과 폐지의 원인이 주된 관심사였다. 서부 폐지의 원인을 사실적인 묘사 열기가 팽배했던 미술계에서 미적 기준의 상실과 관념적 서풍이 만연했던 풍조, 그리고 전통성에 강하게 뿌리박은 미의식의 차이에서 온 결과로 파악한 연구가 있었고,[5)] 서부의 개설과 폐지의 과정이 내선융화와 사회교화 정책을 중심으로 식민지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이어졌다.[6)] 서예사 방면에서도 최근에 연구가 시작돼 조선미전 입선작들의 서체와 서풍 분포가 대략적으로 조사되었고, 북위서와 황정견 서풍의 부각이 일본인 출품자의 우대와 심사원 김돈희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

---

1)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134쪽.
2) 정병호, 「일본근대문학, 예술논쟁연구(1)-『서예는 미술이 아니다』 논쟁과 근대적 예술개념의탄생」, 『일본학보』 55, 한국일본학회, 2003, 335쪽.
3) 五十嵐公一(저), 이중희(역), 「조선미술전람회 창설과 書畫」,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347쪽.
4) 「書와 四君子는 素人藝術에 不過」, 『每日申報』, 1926년 3월 16일.
5) 이중희, 「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44~46쪽.
6) 김정선, 「조선미술전람회 서부(書部)의 제도적 고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1, 37~60쪽.
7) 전상모, 「전람회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의 서예」, 『동양예술』 46, 한국동양예술학회, 2020, 222~224쪽.

이 연구는 조선미전에서 金敦熙의 영향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1918년에 창립한 서화협회의 발기인으로서 제4대 회장을 지냈고, 1회부터 10회까지 조선미전 서부 심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유일한 심사원이었다. 그가 설립한 尙書會에는 해방 이후 미술계를 이끌던 장우성과 손재형을 포함 재조선 일본인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조선미전 서부와 이후의 서도전람회에서 유형의 계파를 형성하였다.

김돈희가 근대기 한국 서예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김돈희에 관해서는 그의 생애와 서단활동 및 서예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다.[8] 그럼에도 그에 관한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은 그에게 항상 따라붙는 친일 전력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친일 전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근거를 이루는 실체가 모호하며 오히려 전해져온 말들이 와전돼 사실로 굳어져온 경향이 짙다. 본고에서는 김돈희가 조선미전 서부 심사원으로 유일하게 전회에 걸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을 그의 행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김돈희가 〈한일병합조약〉을 썼다는 전언이 사실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부 입선작에 그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근대기 서단에서 김돈희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선미전 심사원이 되기까지 김돈희의 행적

金敦熙(1871~1937)의 본관은 경주로, 자는 公叔, 호는 惺堂이다. 그는 중인 집안 출신으로, 사자관이었던 아버지 金東弼과 마찬가지로 20대에 승정원 사자관을 지냈다. 이후 30대에는 궁내부 주사와 전남 재판소 검사, 내각 주사 등을 거쳤고, 일제강점이 시작된 40대 이후로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근무하였다.

김돈희 후손댁에는 김돈희 본인이 출생부터 사망하기 전해인 1936년까지 가족사의 특별한 사항을 총23면에 걸쳐 연도별로 기록한 「惺堂年記」가 있고, 그 뒤로는 본인의 이력을 따로 기록한 5면의 「履歷」이 있다.[9] 이들 기록은 『승정원일기』 및 일제강점기 근대사 자료 『조선총독부관보』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등에 기록된 김돈희 관련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동시에 집안의 사적인 가정사도 기록되어 있어 김돈희의 행적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들 자료를 참조해 김돈희의 행력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표 1).

〈표 1〉 김돈희 행력

연도	연령	기 사
1871	1	7/15 경성 중부 장통방 2리 석정동 3통5호에서 출생
1877	7	慈親에게 천자문 수학

8) 김윤경, 「惺堂 金敦熙의 書藝硏究」,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윤경의 연구는 후손댁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과정을 거친 연구로, 「惺堂年記」와 「履歷」 등의 자료는 김돈희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도 세밀한 조사에 토대한 김윤경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9) 「惺堂年記」에는 1899년(29세) 4월 11일 김돈희의 부친 김동필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기록하였다. 그 내용 뒤로 "내가 평안북도 순창군내에 있어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니 평생 불효를 면하기 어렵다[余在平安北道厚昌郡內未臨終平生不孝難免]."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문장을 통해 「성당연기」를 김돈희 본인이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연령	기 사
1878	8	한문 私塾에 입학해 수업
1888	18	경주이씨 壽炯의 딸과 혼인(처가는 天安), 5월 전의감 의과 급제
1890	20	11/26 승정원 寫字官 실직에 오름(1897년 전반기까지 사자관 지냄)
1893	23	10월 전의감주부에 오름, 11월 부친 첨지중추부사에 蒙點
1894	24	양7월 법관양성소 입학
1895	25	양4월 법관양성소 졸업, 7/15 처 경주이씨 사망(수24)
1896	26	경주최씨 性哲의 딸과 재취, 남부 입정동으로 이사
1897	27	3/3 북부 小安洞으로 이사, 8/15 궁내부 종목과주사, 8/16 開城蔘包所 監採官 부임
1898	28	3월 중부 東谷으로 이사
1899	29	2/7 外部 別派委員에 임명, 평안북도 沿邊 採木 검찰 9월 복명, 4/11 부친 숙환 사망
1900	30	3월 남부 苧洞으로 이사
1901	31	10/17 처 경주최씨 사망
1902	32	5월 벽진이씨 斑의 딸과 재취
1903	33	4/10 모친 숙환 사망, 8/21 통신사 전화과 주사 의원면직
1906	36	8/25 궁내부 판임관 시험 합격 시종원주사, 9/8 주전원주사, 12/1 표훈원주사
		12/5 法官銓考所試驗에 제3호로 급제, 12/10 전라남도 재판소 검사, 12/25 의정부주사
1907	37	6/15 관제개정으로 내각 서기랑에 임명
1908	38	1/1 관제개정으로 내각주사에 임명, 10/21『文獻備考』御製書寫 공로 인정
1909	39	2/5 순종 南巡時 배종, 4월 사직동으로 이사, 6/8 文官普通銓衡委員會書記에 임명
1910	40	4월 丹鳳門 아래 水門洞으로 이사, 8/27 정3품 통정대부 승급
		8/29 일본에 통치권 양여로 인해 폐관, 11/10 조선총독부 취조국위원에 임명
1911	41	4/4 하사금 300원 영수, 4/5 臨時辭書編纂掛 근무
1912	42	3/30 중부 향정동으로 이사, 4/20 취조국 폐지로 인해 舊慣調査事務囑託에 임명
1913	43	8/29 合併記念章 받음
1914	44	1/6 구관조사사무로 함경남북도 출장, 9/13『東式書法』발행(全1책 천권)
1915	45	8/6 일본적십자사 정사원 위임
1916	46	조선총독부 중추원 囑託
1917	47	11/13 金石文編纂事務擔任에 임명
1918	48	6/16 서화협회 창립 발기인
1919	49	7/11 경성부 인사동 248번지에서 가회동 104번지로 이사
1921	51	6/4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委員에 임명, 4/30 서화협회 제4대 회장에 선출
1922	52	4/31 당주동 126번지로 이사, 5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원 임명(10회까지 지속)
1923	53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과 촉탁(1936년까지 지속)
1928	58	12/8 東京과 京都 시찰하고 이듬해 1/6 귀성
1929	59	3월 조부 金進洙 유고『蓮坡集』간행
1934	64	11/11 권농동 165-4호 저택으로 이사
1935	65	8/15 처 벽진이씨 뇌염으로 사망(수57)
1937	67	8/1 성대부속병원에서 숙환으로 사망

일제강점 직후 김돈희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위원에 임명되었다. 종래의 제도와 관습을 조사하는 일과 조선어사전편찬 계획에 따른 사서편찬이 김돈희의 주요 업무였다. 1912년 관제개정으로 취조국이 폐지되며 참사관실 소속의 舊慣調査事務 囑託에 임명되었고, 1916년 중추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이후 중추원 촉탁으로 전속되었다. 그는 중추원 시절 대부분 편찬과와 조사과에 배속되었다. 그는 조선어에 정통한 일본인 및 일본어를 이해하며 학식 있는 조선인을 선발하는 요건을 갖춰 전속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그의 주요 업무였던 조선어사전 편찬사무에서는 한자어의 뜻과 번역된 문안을 재조사하는 일을 맡았다.[10] 따라서 김돈희가 중추원에서 근무할 당시 글씨 쓰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는 촉탁이란 관직명과 함께 연수당 액수가 표기되어 있어 촉탁은 상근에 가까운 실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돈희는 이후 줄곧 조선총독부 중추원 소속 촉탁으로 근무했다. 조선미전 서부 심사원으로 있던 기간은 물론 작고하기 한 해 전인 1936년까지도 총독부 중추원 촉탁직을 유지했다. 그가 1922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미전 서부 심사원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 후 40대부터 총독부에 근무하며 권부의 그늘에 머물렀던 것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조선미전 시대를 호령했던 김돈희에게는 숙명처럼 따라붙는 오명이 있다. 1910년 국권 피탈 당시 한국을 일본에 병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韓日倂合條約」(이하 '조약문'으로 약칭)을 직접 썼다는 친일 전력이다.[11] 그가 조약문을 썼다는 유일한 단서는 김돈희와 교유가 잦았던 화가 金殷鎬(1892~1979)의 아래의 회고에 의해서이다.

> "성당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六朝體(黃庭堅體)를 특히 잘 써 그들의 존경을 받았었다. 중인계급이라서 서울 북촌에 사는 사족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필력만은 당대의 제일이란 소리를 듣기에 모자람이 없었다.……일제의 강권에 못 이겨 韓日合邦文을 썼다는 얘기도 전한다."[12]

위 글에 나와 있듯이 김돈희가 조약문을 썼다는 전언을 들었을 뿐, 김돈희가 조약문을 직접 썼다고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 김은호의 회고가 조약문과 김돈희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조약문을 체결할 당시의 관련 문헌을 찾아봐도 김돈희가 직접 썼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약문을 김돈희가 쓴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이로 인해 김돈희의 친일 행적을 언급할 때 조약문을 필사한 일이 씻지 못할 과오로서 가장 먼저 거론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김돈희가 조약문을 필사할 위치에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1908년의 『대한제국직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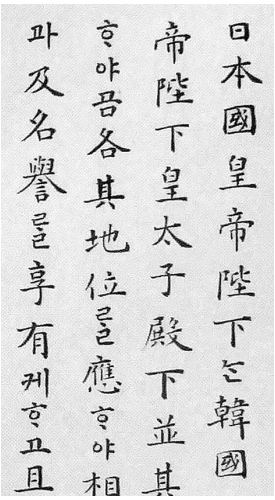
10) 중추원조사자료 「第五節 朝鮮語辭典ノ編纂」, 『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 第2冊, 朝鮮總督府中樞院, 55~75쪽. ≪중추원 조사자료≫(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u)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 시기 중추원 자료 중 不動産法調査會, 法典調査局, 中樞院, 朝鮮史編修會 등에서 조사·정리하거나 중추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11)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논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자세한 도판을 실은 자료로 윤대원, 「일제가 불법, 조작한 병합조약」,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이태진·이상찬,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불법성의 증거들』, 동북아역사재단, 2010이 참고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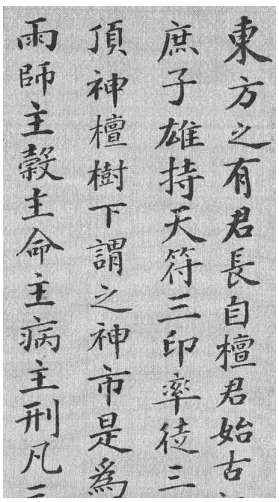
12) 김은호, 『書畫百年』, 중앙일보사, 1981, 271쪽.

록』을 보면 김돈희는 내각의 文書課 소속 과원으로 있었다. 문서과 과장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으로 있던 金明秀(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의 처조카)가 겸직하였다. 문서과에서는 조칙 법률의 발포, 공문의 발송·접수와 공문의 기안·작성, 황제에게 올리는 글 등의 淨寫를 담당하였다.[13] 당시 내각에서 문서의 정사를 전담한 곳은 문서과였기에 김돈희가 조약문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조약문이 체결된 바로 직후인 1910년 8월 27일에 6품이었던 김돈희의 품계가 정3품으로 오르고 통정대부로 승급한다.[14] 조약문을 필사한 공로로 갑작스런 승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문서과 과원은 김돈희 외에도 趙英鈺, 金鳳洙, 鄭喆永, 朴準弼, 黃義正이 있었다.[15] 따라서 김돈희가 문서과 과원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조약문을 김돈희가 썼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약문과 김돈희가 쓴 소자 해서를 대조해 보는 것이다. 김돈희의 소자 해서는 현재 3종이 남아있다. 간찰 쓰는 방식을 석인본으로 간행한 『東式書法』(1914), 『槿墨』에 실린 필사본(1915), 조부 金進洙의 시집을 세필로 정서해 석인본으로 간행한 『蓮坡詩鈔』(1928)이다. 이 중 조약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적합한 필적은 『근묵』에 실린 〈遇閱東國史〉로, 김돈희가 1915년에 비단에 정중하게 써서 오세창에게 준 글씨이다.[16]



〈그림 1〉〈한일병합조약〉 부분, 1910.8.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 김돈희, 〈遇閱東國史〉 부분, 1915, 27.2×23.5㎝ 『槿墨』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3) 이영학,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2009, 162쪽.

14) 『승정원일기』 순종 4년(1910) 7월 23일(갑자, 양력 8월 27일). 같은 문서과 과원이었던 趙英鈺도 6품에서 정3품으로 승급하였다.

15) 內閣印刷局 編, 『內閣職員錄』, 內閣印刷局, 1908, 46쪽.

16) 『근묵』에 실린 김돈희의 진적은 말미의 관지에 "을묘년(1915) 봄에 우연히 東國史를 보다가 마침 남은 먹물이 있어 史家이신 葦滄 인형의 질정을 바라며 쓴다[乙卯春遇閱東國史 適因宿墨 寫要葦滄仁兄史家正 惺堂金敦熙]."는 내용이 있어 1915년 오세창을 위해 써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古記」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단군신화와 고조선 건국 사실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두 필적을 비교해보면 조약문(그림 1)의 글씨는 당 구양순에 가까운 예각의 깔끔한 필치를 보이며 늘씬한 느낌을 준다.[17] 반면 김돈희의 소해(그림 2)는 당 안진경에 기반한 둥근 원필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한 눈에 비교해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약문과 김돈희의 소자 해서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두 글씨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약문은 약획(ノ)이 짧고 파임(㇏)이 늘씬한 반면, 김돈희 소해는 파임에 비해 약획이 비교적 길게 강조되어 있다. ② 조약문은 가로획과 세로획 굵기의 대비가 크지 않은 반면, 김돈희 소해는 가로획에 비해 세로획이 굵어 당시 유행하던 안진경 해서 획법의 영향이 배어있다. ③ 두 글씨에서 가장 대비되는 점으로, 조약문에 비해 김돈희 소해의 가로획 기울기가 심해 오른쪽이 더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

두 필적의 작성 시기는 5년의 차이가 있다. 동일인이 썼다면 5년이란 기간에 필획을 조합하는 방식과 전체적인 서풍이 이렇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던 김돈희의 조약문 필사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약문 필사설을 김돈희의 친일 전력의 근거로 거론해온 오류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약문 작성 당시 문서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영옥을 포함한 5인중 누군가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이들의 필적을 찾아 비교 검토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2〉 조약문과 김돈희 소자 해서 글씨 비교

	조약문	김돈희		조약문	김돈희		조약문	김돈희		조약문	김돈희
東			命			子			年		
有			持			爲			歲		
記			印			事			後		
國			於			身			達		
因			太			名			平		

* 출처 : 〈한일병합조약〉(奎23018 · 23019), 〈각서〉(奎23159); 金敦熙, 〈遇閱東國史〉, 1915, 『槿墨』, 성균관대학교박물관.

17)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李完用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체결한 「韓日併合條約」은 국한문혼용본(奎23018)과 일문본(奎23019)이 있다. 조약을 황제의 조칙과 함께 공포한다는 각서 〈韓國合併條約 및 兩國皇帝詔勅의 公布에 관한 覺書〉(奎23159) 역시 조약문 체결 뒤에 조인하였는데, 3종 문서는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김돈희는 서예연구소인 尙書會를 열어 후진을 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서회의 개설 시점은 확실히 알려진 바 없으나, 그의 조선미전 심사위원 활동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상서회의 위치는 화가 張遇聖의 기록에 따르면 을지로 입구로 청계천 두 번째 다리 건너 개천가로, 서화골동수집가 李容汶의 집을 빌려 썼다고 한다. 이용문의 집 위치는 당시의 신문에 자주 언급되었는데, 지금의 중구 을지로 1가(을지로입구역 부근)에 해당한다.[18]

장우성이 상서회에 나가기 시작한 1930년대 초반 당시 회원은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은 孫在馨, 李炳學 등 소수였다고 한다. 상서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로 시간을 정해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졌다. 김돈희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체본을 써주면 일주일간 연습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19] 김돈희가 1937년 사망할 당시 부고를 알린 신문기사에 김돈희가 '최근에 상서회를 조직하여 서도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보면 1930년을 전후하여 상서회가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 여러 정황상 상서회는 근대적 성격의 서예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의 개인서숙에 가까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상서회의 개설 시기와 운영 규모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김돈희의 조선미전 출품작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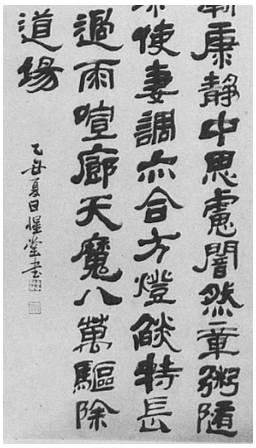
김돈희가 조선미전에 심사원으로 출품한 작품 중 그의 서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서, 행서, 초서이다. 4회 참고품으로 출품한 예서(그림 3)는 東漢의 〈張遷碑〉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변화를 꾀한 것으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특유의 예서풍을 구사하였다. 10회에 심사원으로 출품한 행서(그림 4)는 북송 黃庭堅의 행서 〈題蘇軾黃州寒食詩卷跋〉(그림 5)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왼쪽으로 내리 긋는 약획(ノ)을 강조하고 역시 우견이 많이 올라가는 기다란 가로획을 특징으로 한다. 8회 심사원으로 출품한 초서(그림 6)는 황정견의 행서 필획을 바탕으로 唐의 顔眞卿과 孫過庭의 書譜류 행초서를 가미한 것이다.

한편, 김돈희가 5회에 심사원으로 출품한 〈五體書屛〉은 전·예·해·행·초서 5체를 다양한 서풍으로 구사한 12폭 병풍으로, 역시 김돈희 서풍의 전형을 보여주는 기준작이라 할 수 있다(표 3 참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2폭 가운데 7폭이 역대 法帖을 그대로 베껴 쓴 臨書이고 나머지도 임서와 유사한 仿書이거나 법첩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集字에 가까워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서부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심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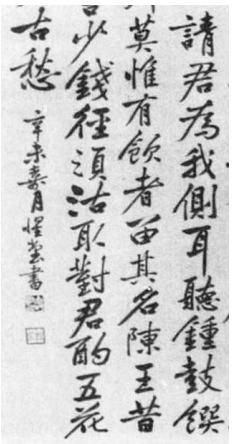
18) 이용문의 집 주소는 '美洞 鳳鳴學校'(「雜報, 聯合歡迎」,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3일), '황금정 일정목 96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3271호, 1923년 7월 6일) 등으로 자주 기사화되었다. 김은호의 회고에 의하면 1923년에 설립된 고려미술원의 연구소 자리도 동일한 위치인 이용문의 舊家(황금정 2정목 봉명학교 옆)를 빌려 썼다고 한다. 김은호, 『서화백년』, 중앙일보사, 1981, 116쪽.

19) 張遇聖, 『畫脈人脈』, 중앙일보사, 1982, 15~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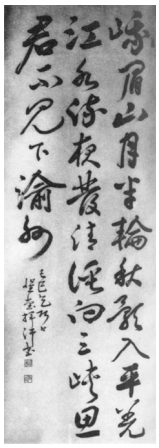
20) 「惺堂金敦熙氏 朝鮮 『書道』의 大家」, 『매일신보』, 1937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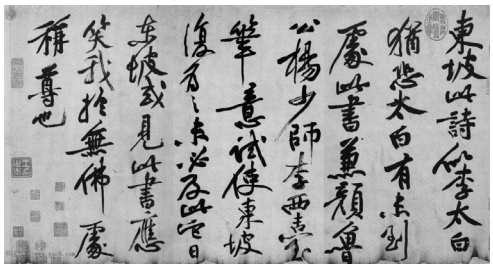
〈그림 3〉 김돈희, 〈敗絮麤氈〉 부분, 1925, 조선미전 4회 참고품



〈그림 4〉 김돈희, 〈將進酒〉 부분, 1931, 조선미전 10회 심사원 출품작



〈그림 6〉 김돈희, 〈巫峽〉, 1929, 조선미전 8회 심사원 출품작



〈그림 5〉 黃庭堅, 〈題蘇軾黃州寒食詩卷跋〉, 종이에 먹, 34.3×64㎝ 臺北故宮博物院

의 출품작로서는 다소 격에 맞지 않는다. 古拓 임서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람회 출품 작가들의 창작 열기를 가라앉히며 안이한 태도를 조장할 염려가 있었다. 불행히도 서부가 존속했던 조선미전 내내 많은 임서작들이 별 문제 없이 입선의 관문을 통과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全幅의 위치도 잡지 못하고 낙관을 쓰는 법도 모르고 主文의 설명에는 터무니없는 것을 쓰거나 혹은 임서라 해도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른다. 점획의 오기 등은 말할 것도 없다."는 심사평을 듣기에 이르렀고,[21] 오탈자 시비와 함께 출품작의 비전문성에 대한 질타가 매회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작 김돈희로부터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었다. 조선의 서예는 19세기까지도 송·명대 米芾·董其昌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서풍에 머물러있었고, 개항기 이후에야 비로소 청대 碑學派의 선구라 할 수 있는 鄧石如(1743~1805)의 존재와 그들이 추구했던 금석고탁과 선본 입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구나 전람회라는 근대적 방식의 제도와 공간 속에서 고래의 전통적 가치를 견지하고자 했던 서예가들에게 고탁의 임서는 어쩌면 창작에 버금가는 선진적 작품 활동으로 인식되었을 지도 모른다.

21) 「朝鮮美術展覽會第三部書を評す」, 『朝鮮公論』 12권4호(1924. 4), 112쪽; 김정선, 앞의 논문, 49쪽에서 재인용.

〈표 3〉 김돈희 〈오체서병〉의 서체 및 내용

	서체 및 제목	내용
1폭	전서 金文, 周盤銘文	臨書
2폭	전서 小篆, 秦嶧山石刻 集字	理道高明, 國家康樂을 소재로 한 자작시
3폭	예서, 漢張遷碑筆意	張遷碑集字 6언대련
4폭	전서, 吳 天發神讖碑 集字	6언대련
5폭	해서, 北魏 鄭羲下碑 節錄	임서
6폭	해서, 唐 褚遂良 雁塔聖教序	임서
7폭	행서, 晉 蘭亭叙	임서
8폭	행서, 唐 顔眞卿 爭座位稿	임서
9폭	행서, 仿 宋 黃庭堅 筆意	자작시 칠언절구
10폭	초서, 漢 章帝書	임서
11폭	초서, 錄 唐 張旭書	唐 懷素의 過鍾帖 임서
12폭	초서	宋 朱熹의 오언절구 「百丈山六詠」

김돈희의 〈오체서병〉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나라 〈嶧山石刻〉을 집자해서 쓴 소전(제2폭)은 성리학적 이상을 표현한 '理道高明'과 국가공동체적 이념을 강조한 '國家康樂'을 소재로 지은 자작시를 쓴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1927년 제6회 조선미전에 발표한 〈百姓昭明協和萬邦〉(그림 7)은 오창석 전서풍 바탕에 고전을 가미하여 투박한 선질과 조형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수준급의 전서이다. 그 내용은 '쇼와(昭和)' 연호의 유래가 된 8글자로,[22] 1926년 12월부터 시작된 쇼와 시대의 탄생을 형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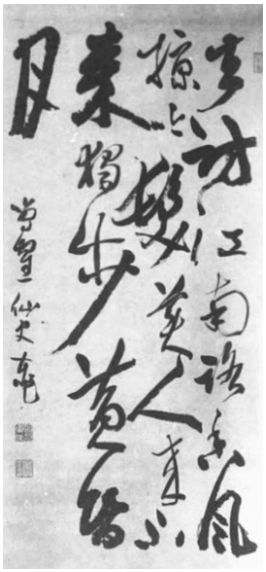
〈그림 7〉 김돈희, 〈百姓昭明協和萬邦〉, 1927, 조선미전 6회 심사원 출품작

조선미전 서부에서는 유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거나 메이지천황의 御製를 쓴 가나 초서(假名文字) 작품들이 매회 일정량 입선에 들었다. 이처럼 전통적 질서체계와 관련된 주제의 작품들이 다수 입선한 것은 서부 개설의 목적이 '내선융화와 국민정신의 작흥'이라는 사회교화 정책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3]

22) '百姓昭明協和萬邦'은 『書經』 「堯典」에 요 임금의 덕정을 찬미한 내용의 글로, "백성들이 밝게 다스려지자 만방의 제후국을 화목하게 하였다[百姓昭明 協和萬邦]."라는 뜻이다.

김돈희의 서풍과 관련해서는 앞서 인용한 김은호의 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돈희가 육조체(북위 시대의 석각 글씨)와 황정견체를 특히 잘 써 일본인들의 각광을 받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김돈희가 주로 구사했던 이른바 황정견체는 황정견의 호를 따 '黃山谷體'로 불리며 해방 이후 국전시대까지도 단골 서체로 지속적으로 출품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황정견체는 남조의 마애석각 〈瘞鶴銘〉 또는 북위의 〈石門銘〉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받는다.[24] 김돈희로 대변되는 황산곡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를 상징하는 서풍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뚜렷한 사승관계도 보이지 않아 독자적인 학습에 연원을 둘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근대서도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구사카베 메이가쿠(日下部鳴鶴, 1838~1922)를 주목해볼 만하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김돈희가 소장했던 도서들이 기증되어 있다.[25] 이들 도서목록 중 『鳴鶴先生隷法字彙』 3책, 『鳴鶴先生楷法字彙』 6책, 『日下部鳴鶴先生印譜』 등 구사카베 메이가쿠가 직접 써서 석인본으로 간행한 자전류 서적이 유독 많다.

구사카베 메이가쿠는 1880년에 주일공사 일행으로 일본에 와 4년간 체류한 중국의 금석학자 楊守敬(1839~1915)에게 碑學·六朝書·篆隷를 익혔고, 육조서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서풍을 이룬 서가이다. 예서는 漢碑 〈西狹頌〉, 〈張遷碑〉, 〈石門頌〉, 〈北海相景君碑〉 등을 익혔고, 해서는 북위 鄭道昭의 글씨를 바탕으로 당 褚遂良의 서풍을 가미하였고, 초서는 손과정의 〈서보〉에 바탕을 두었다.[26] 그런데 앞서 소개한 김돈희의 〈오체서병〉에 이들 한비와 정도소·저수량·손과정을 익힌 임서작이 있어 구사카베 메이가쿠가 관심을 두고 익혔던 명적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특히 구사카베 메이가쿠의 〈초서 오언시〉(그림 8)에는 약획을 강조한 황정견 서풍이 가미되어 있고 필압이 느껴지는 투박한 획법이 구사되어 있어 일면 김돈희와 유사한 점이 있다.[27]



〈그림 8〉 日下部鳴鶴, 〈초서 오언시〉, 1886, 『鳴鶴先生叢話』 수록

김돈희와 교분이 있는 일본의 서예가 히다이 덴라이(比田井天來, 1872~1939)는 구사카베 메이가쿠의 4대 제자 중 한 명이다. 조선의 古碑와 書帖을 모아 『朝鮮書道菁華』를 편찬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가 1926년 경성에 왔을 때 '書聖 日下部鳴鶴의 高弟이자 초서 가나 혁명의 선구자'로 소개될 정도로 일본에서 그는 이미 대가의 반열에 든 서가였다.[28] 그는 당시 李容汶의 별장에 머물며 서예 강습을 해 다수의 회원을 지도하였고, 고적을 탐방하며 고탁을 모으고 조선총독부와 창덕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글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그의 사진과 함께 크게 실린 바 있다.[29] 그가 기획

23) 김정선, 앞의 논문, 47쪽.
24) 藤原楚水, 『圖解書道史』 4, 東京: 省心書房, 1975, 98쪽.
25) 김윤경, 앞의 논문, 〈부록 2〉 성당김돈희 도서목록 참조.
26) 奥山錦洞(著), 『日本書道史』, 東京: 啓文社書店, 1927, 323~324쪽.
27) 구사카베 메이가쿠의 〈초서 오언시〉 도판은 井原雲涯 編, 『鳴鶴先生叢話』, 東京: 昭文堂, 1925, 卷首寫眞 참조.
28) 「草假名革命の先驅者, 天來翁近く來城」, 『경성일보』, 1926년 9월 22일.

하여 간행한 책이 바로 『조선서도청화』이고, 김돈희가 황정견풍의 정갈한 해서로 서문을 써주었다.[30] 히다이 덴라이 역시 고법 임서의 집대성이라 할 『學書筌蹄』(1921년 간행)를 저술하여 임서의 혁명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1] 따라서 김돈희가 히다이 덴라이와의 교분을 통해서도 구사카베 메이가쿠로부터 전습된 임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돈희가 구사카베 메이가쿠의 서풍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비와 북위서를 재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모티프를 그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나아가 김돈희가 남북조시대의 글씨를 접하며 〈예학명〉과 〈석문명〉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산곡체를 자신의 서풍으로 상징화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Ⅳ. 조선미전에 미친 김돈희의 영향

1922년부터 1931년까지 10회 동안 운영된 조선미전 서부는 김돈희·김규진을 포함하여 이완용, 박영효, 정대유, 박기양, 서병오가 심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인은 다구치 베이호(田口米舫)를 포함 4인이 번갈아가며 심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김돈희와 김규진이 심사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김돈희는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참여하여 심사원으로서 그의 위상이 특출했다. 조선미전 1회부터 10회까지 서부 심사원의 참여 현황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조선미전 서부 심사원 현황

횟수	김돈희	김규진	이완용	박영효	정대유	박기양	서병오	田口米舫	長尾雨山	加藤登太郎	杉溪言長
1회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4회	○	○	○	○				○			
5회	○	○						○			
6회	○	○									
7회	○						○			○	
8회	○						○		○		
9회	○								○		
10회	○										○

29) 「この立派な朝鮮の書道, 世に廣く知らしめんと天來書伯の苦心」, 『조선신문』, 1926년 11월 10일.
30) 比田井鴻 編, 『朝鮮書道菁華』(총5책), 東京: 書學院後援會, 1931.
31) 芸術新聞社 編, 『近代日本の書』, 東京: 芸術新聞社, 1984, 110쪽.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이 열렸을 때 문외한이라는 필명의 평자는 선전에 심사원으로 출품한 김규진의 〈龜龍〉을 '구렁이'라 깎아내리며 심사원이라는 금딱지가 안 붙었으면 가장 먼저 낙선할 글씨라며 호된 비판을 하였다. 이어 '海岡의 전성시대는 갔다.'고 일갈하며 그의 글씨는 이제 쇠경에 들어 더 이상 이전의 종횡자재한 자태를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 하였다. 반면 높은 안목과 기법의 노련함을 들어 김돈희의 글씨를 추켜세웠다.[32] 평자의 개인적 인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당시 전람회 국면에서 김규진의 쇠락과 김돈희의 부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듬해에 김규진은 한 차례 더 심사원에 위촉된 뒤 결국 심사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완전한 김돈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본인 심사원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구치 베이호(田口米舫, 1861~1930)는 이름이 茂一郎으로, 청에 들어가 3년간 서예를 익히고 돌아왔다. 평화박람회 심사위원장과 일본서도작진회 평의원을 지냈고, 書畫骨董叢書 제6권인 『書道實習法』(1921)을 저술한 바 있다.[33] 李漢福이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할 당시 다구치 베이호에게 서예를 배웠다고 한다.[34]

그가 2회 심사원에 선정되었을 때 다구치 베이호가 작년에 개최됐던 평화박람회 서도주임심사원으로 역량을 보였고, 근래에 서화연구 『書勢』 등 잡지의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개가 신문에 실렸다.[35] 3회 조선미전 때 심사를 위해 경성역에 도착한 다구치 베이호의 인터뷰 기사와 사진이 대서특필되기도 하였다.[36]

8회 심사를 맡은 나가오 우잔(長尾雨山, 1864~1942)은 메이지 시기 일본의 한학자이자 서화가이며 전각가이다. 심사를 위해 경성에 왔을 때 총독부와 경성일보 주최로 서화강연회를 가졌으며, 그가 중국에서 20여년 글씨를 익혔고 日本美術協會와 戊辰書道會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개가 있었다.[37] 나가오 우잔은 "서는 다른 예술과 달리 학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方式이나 古人의 例를 연구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글자는 한 획을 잘못 긋더라도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초서 등도 기묘하게 쓰는 것에 흥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작가가 무엇을 써도 괜찮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잘한 기교로 쓴 글씨보다는 정확하기만 하다면 기교가 치졸해도 참을 수 있으며 공을 들인 작품이라도 異式이 심하면 입선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여 나름의 심사관을 밝혔으며,[38] 落款하는 법, 아호와 인장을 사용하는 법 및 오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9회 심사를 위해 경성에 도착한 나가오 우잔의 전신사진이 크게 실리기도 하였다.[39]

제7회 서부 심사원으로 참여했던 가토 도타로(加藤登太郎, 1870~1960)는 京都에서 주로 활동한 서가로, 구사카베 메이가쿠(日下部鳴鶴)의 계파에 속하는 서가이다. 다이쇼 박람회에 출품한 글씨가 수석의 영예를

32) 「美展印象」, 『조선일보』, 1926. 5. 14~5. 22. 총8회 연재(한국미술연구소편,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 한국미술연구소, 2000, 125쪽).
33) 奧山錦洞 著, 앞의 책, 397쪽.
34) 한국미술연구소편, 위의 책, 75쪽.
35) 「미술전람 심사원 선정, 半井학무과장 談」, 『매일신보』, 1923년 3월 2일.
36) 「鮮展兩審査員田口,長原兩氏入城」, 『경성일보』, 1924년 5월 25일.
37) 「書畫の眞髓を熱辯で說く」, 『경성일보』, 1929년 8월 30일.
38) 「変化があって興趣を感ずる」, 『경성일보』, 1930년 5월 15일.
39) 「『朝鮮の色』には大した期待はない, 長尾雨山氏語る」, 『경성일보』, 1930년 5월 10일.

차지해 명성이 자자하다고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40] 10회에 심사원이었던 스기타니 도키나가(杉溪言長, 1865~1944)는 京都 출신으로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일본 남화 화가이다. 전람회 심사를 앞두고 조선신문 기자와 나눈 담화에서 스기타니는 "조선에는 옛날 중국 명적의 법첩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연구가 필요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당·송·원·명 각 시대 명적의 고첩들이 입수되고 있으니 이들 법첩을 열심히 익혀 조선류를 벗어나길 바란다."고 하였다.[41] 10회 서부에서 김돈희풍의 입선비율이 전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은 아마도 스기타니의 인식이 심사기준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돈희는 조선미전 서부 심사원으로는 유일하게 전회에 걸쳐 심사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서부에는 김돈희의 서풍을 구사하는 출품자가 점차 증가하며 김돈희 계열의 작가군이 형성되었다. 조선미전 서부에서 김돈희 계열에 속하는 입선작의 비율과 입선자 명단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5, 6).

〈표 5〉 조선미전 서부 김돈희계열 입선수 비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서부 입선수	46	51	52	49	18	46	45	51	46	64
김돈희 계열 입선수	3	2	3	4	4	11	16	15	19	23
비율(%)	6.5%	3.9%	5.8%	8.2%	22.2%	23.9%	35.6%	29.4%	41.3%	35.9%

〈표 6〉 조선미전 서부 김돈희 계열 입선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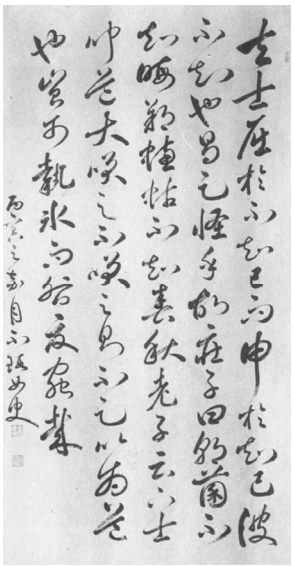
횟수	한국인	일본인
1회	宋之憲	葛城末治(2)
2회	-	葛城末治(2)
3회	金瑱珉	葛城末治(2)
4회	金瑱珉	葛城末治, 荒木謙吉(2)
5회	李容汶, 金瑱珉(2)	片岡辰之助
6회	孫在馨(2), 金瑱珉(2)	葛城末治, 和田リツ子, 宇野宗一(2), 古林淸太, 江頭富雄, 佐佐木正太
7회	李碩鎬, 孫在馨(2), 金瑱珉(3)	渡邊宇太郎, 片岡辰之助, 中島貞信, 古林淸太(2), 深見寅市, 江頭富雄, 宇野宗一(3),
8회	李碩鎬, 孫在馨, 金瑱珉, 金秉鶴	渡邊宇太郎, 葛城末治(2), 片岡辰之助, 田中太一, 深見寅市(2), 江頭富雄, 宇野宗一(3)
9회	孫在馨(2), 李柱浣, 金秉鶴, 金瑱珉(3)	戶村廉, 渡邊宇太郎(2), 宇野宗一(2), 上杉直三郎, 松尾嘉藏, 深見寅市, 江頭富雄, 安東貞一郎, 葛城末治(2)
10회	孫在馨(3), 金瑱珉(3), 崔敞鎬	渡邊宇太郎, 松尾嘉藏, 深見寅市(2), 江頭富雄(3), 安東貞一郎(2), 三好麟造(2), 葛城末治(2), 宇野宗一(3),

* 괄호 안 숫자는 입선한 작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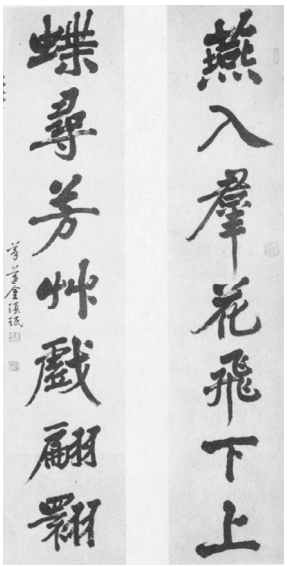
40) 「鮮展審査員けふ發表さる」, 『경성일보』, 1928년 4월 3일.
41) 「鮮展は迫って先づ兩審査員入城」, 『조선신문』, 1931년 5월 16일.

김돈희 계열의 작품을 발표한 한국인은 金瑱珉과 孫在馨을 비롯해 宋之憲, 李容汶, 李碩鎬, 李柱浣, 金秉鶴, 崔敞鎬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미전 서부 전회에 걸쳐 김돈희와의 사승관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서가는 김진민과 손재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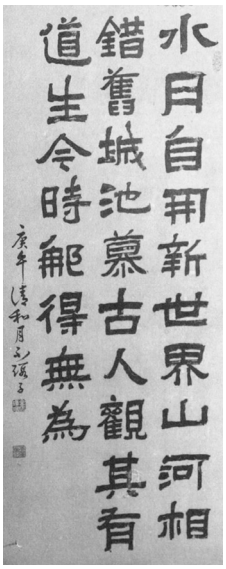
金瑱珉(1912~1991)은 조선미전에서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활동한 여류 서예가이다. 9세에 김돈희에게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12세인 1924년 3회에 초입선하여 8회에 걸쳐 16점의 작품을 발표하였다.[42] 무감사로 출품하기 시작한 5회부터는 전형적인 김돈희풍을 구사하였는데, 행초로 쓴 〈書譜節錄〉(그림 9)은 어린 여류 서가의 글씨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력을 선보였다. 행서 〈七言對聯〉(그림 10)과 같은 황정견에 바탕을 둔 김돈희류의 행서풍은 10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행초서는 점차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고, 9회에 처음으로 출품한 예서작 〈書悔〉(그림 11)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서풍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림 9〉 김진민, 〈書譜節錄〉, 1926, 조선미전 5회 무감사작



〈그림 10〉 김진민, 〈七言對聯〉, 1930, 조선미전 9회 무감사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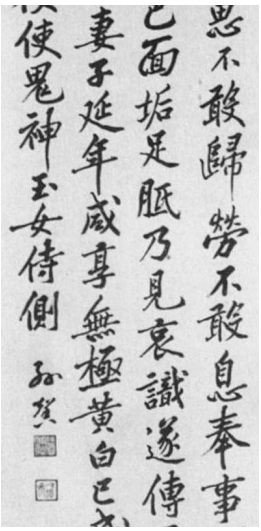


〈그림 11〉 김진민, 〈書悔〉, 1930, 조선미전 9회 무감사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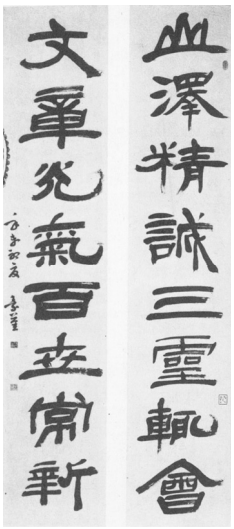
孫在馨(1903~1981)은 1920년 18세 때 상경한 이후로 安鍾元의 주선으로 김돈희의 상서회에 입회하여 글씨를 익힌 것으로 전해진다.[43] 제3회에 예서로 출품해 첫 입선하였는데, 청 등석여풍의 예서를 구사해 김돈희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6회에 입선한 〈嵯峨流俗〉(그림 12)은 황정견 행서에 기반을 둔 김돈희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김돈희 서풍과 흡사할 정도로 변모해갔다. 특히 예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42) 김진민의 생애와 서예에 관해서는 윤범모, 「일제 강점하의 서예와 金瑱珉」, 『동악미술사학』 9, 2008, 37~56쪽.
43) 김원익, 「素筌 孫在馨 硏究」, 전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7쪽.

보여 10회에 무감사로 출품한 〈隷書對聯〉(그림 13)은 필획의 이완화를 보인 김돈희풍의 습기가 사라지고 개성적 예서풍으로 변모하였다. 9회에 전서로 입선한 〈集句〉(그림 14)는 오창석에 기반을 둔 획법에 고전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전서를 선보여 다른 서체보다 조형성이 두드러진 김돈희의 전서풍에 영향을 받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2〉 손재형, 〈嵯峨流俗〉 부분, 1927, 조선미전 6회 입선작



〈그림 13〉 손재형, 〈隷書對聯〉, 1931, 조선미전 10회 무감사작

〈그림 14〉 손재형, 〈集句〉 부분, 1930, 조선미전 9회 입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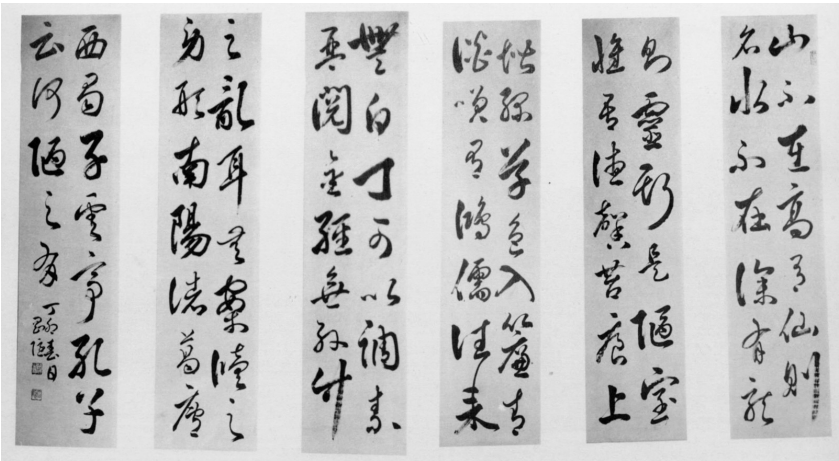
김돈희 계열의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일본인은 『朝鮮金石攷』를 편찬한 것으로 잘 알려진 가쓰라기 스에지(葛城末治)를 비롯해 우노 소이치(宇野宗一), 에가시라 토미오(江頭富雄), 후카미 도라이치(深見寅市), 와타나베 우타로(渡邊宇太郎), 안도 데이치로(安東貞一郎), 가타오카 다쓰노스케(片岡辰之助)를 들 수 있다.

일제강점 이후 김돈희의 관력을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을 통해 살펴보면 1916년 김돈희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囑託으로 있을 때 가쓰라기 스에지가 중추원 촉탁의 바로 윗급인 屬으로 있어 조선미전 개최 이전부터 김돈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 김돈희가 중추원 편찬과 촉탁으로 있을 때 가쓰라기 스에지가 편찬과 속을 겸직하며 조선미전이 개최되던 1922년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1923년부터 김돈희가 작고하기 한 해 전인 1936년까지는 중추원 조사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중추원에 있던 대부분의 시간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풍의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가쓰라기 스에지는 5회와 7회를 제외하고 줄곧 입선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1회부터 김돈희 계열의 서풍을 선보이며 김돈희와의 관계성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다. 6회에 입선한 〈陋室銘〉 6폭 병풍(그림 15)은 필압이 느껴지는 장중한 필획과 조화로운 결구, 호방한 운필이 돋보인다. 그가 손과정 서보류의 초서를 바탕으

로 김돈희의 행초풍을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그러나 이후 10회까지 출품한 무감사작들은 초기에 비해 결구와 장법이 이완되는 현상을 보여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개업의로 군의관을 지낸 우노 소이치(宇野宗一, 1872~?)는 1908년 6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육군 장교와 군의관을 대동하고 순종을 알현할 당시 육군일등 軍醫正으로 동석한 바 있다.[44] 이후 1910년에 大韓醫院 사무관에 임명되었고,[45]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보건계 및 警察醫 촉탁을 지내는 한편, 황금정 3정목(현 을지로 3가)에 宇野醫院을 개업하여 1940년대 초반까지 운영하였다.[46] 러일전쟁 참전 회상담을 대서특필한 1940년 일간지에 우노 소이치가 육군성 의무국 과원으로 참전했던 회상담이 사진과 함께 크게 실려 그가 경성의 개업의로서 꽤 비중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음을 알려준다.[47] 제9회 조선미전 출품을 앞두고는 우노 소이치의 인물사진과 함께 그가 京城尙書會의 동인으로 역량 있는 작가임을 소개한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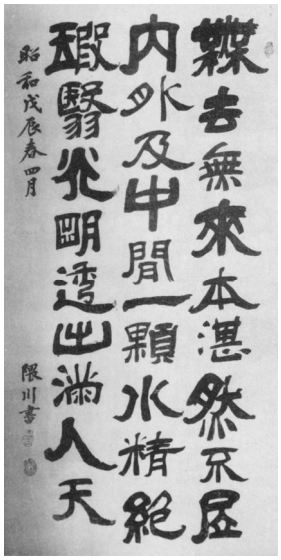
〈그림 15〉 葛城末治, 〈陋室銘〉 6폭 병풍, 1927, 조선미전 6회 입선작

우노 소이치는 조선미전 서부에 4회부터 입선하기 시작했다. 5회 입선작은 당 안진경을 익힌 노련한 필치를 보여 그가 김돈희를 만나기 전에는 당시 유행하던 안진경 행초 서풍에 진력했음을 알 수 있다. 6회 이후부터는 둔중한 필압과 태세의 변화가 두드러진 행초서풍을 구사해 김돈희에 더욱 핍진해졌다. 7회에 무감사작으로 출품한 예서 〈無去無來詩〉(그림 16) 역시 〈장천비〉 바탕에 조형적인 변화를 꾀한 김돈희 예서의 자형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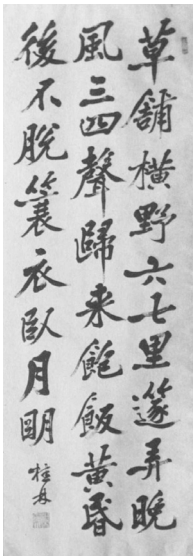
44) 「宮廷錄事」, 『황성신문』, 1908년 6월 13일.
45) 『승정원일기』 순종 4년(1910) 3월 2일 병오.
46) 「광고, 宇野醫院」, 『조선신문』, 1941년 1월 25일.
47) 「擔架兵の勞苦, 手術や輸送に苦心, 二等軍醫正宇野宗一氏談」, 『조선신문』, 1940년 3월 10일.
48) 「鮮展を前にして(20), 熱意に動かされ今年も三點を出品」, 『경성일보』, 1930년 5월 11일.

에가시라 토미오(江頭富雄, 1880~?)는 일본 나가사키 출신의 안과 의사이다. 나가사키의 長崎病院에 근무하다 1907년 3월 조선에 건너와 京城民團에서 세운 漢城病院 안과 부장이 되었다. 1909년 6월 江頭眼科醫院 개원하여 1930년대 중반까지 안과병원장으로 활동하였다.[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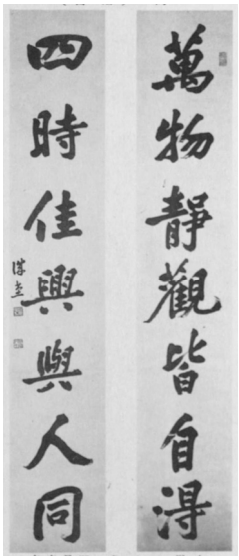
에가시라 토미오는 6회부터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시작했다. 6회 입선작 〈草鋪橫野〉(그림 17)는 황정견에 바탕을 둔 김돈희의 필획이 현저해 그가 이른 시기부터 김돈희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행초서 역시 김돈희의 서풍에 기반을 둔 수준 높은 작품 경향을 보였다. 조선미전 이후 3회에 걸쳐 진행된 조선서도전람회에도 같은 경향의 작품을 출품하여 연입선하였다.



〈그림 16〉 宇野宗一, 〈無去無來詩〉, 1928, 조선미전 7회 입선작



〈그림 17〉 江頭富雄, 〈草鋪橫野〉, 1927, 조선미전 6회 입선작



〈그림 18〉 深見寅市, 〈詩(楷書)〉, 1930, 조선미전 9회 입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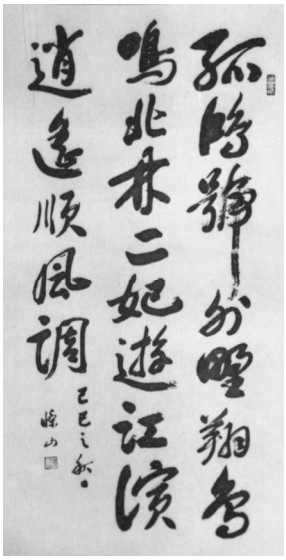
앞서 장우성이 상서회 멤버로 언급한 인천의 한일양조장 사장(일본인)은 7회부터 10회까지 조선미전에 연입선한 후카미 도라이치(深見寅市)를 가리킨다. 후카미는 부친이 인천에 설립한 양조업을 이어받아 1912년 양조회사 深見釀造場을 경영하는 여가에 김돈희에게 서예를 익혔다.[50] 인천의 실업계에 큰 세력을 형성하여 1939년에 인천상공회의소 會頭에 올랐고,[51] 회두가 된 이듬해에는 금4만원 상당의 군용비행기 한 대를 헌납하여 당국으로부터 '감격스런 쾌거'라는 평과 함께 이를 선전하는 기사와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다.[52]

선전에 입선한 후카미의 글씨는 김돈희풍이 현저해 그가 이른 시기부터 김돈희에게 서예를 익혔음을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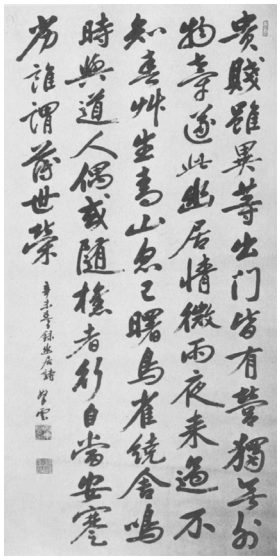
49) 朝鮮實業新聞社 編, 『(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 제1편, 京城: 朝鮮實業新聞社, 1913, 196쪽.
50) 高橋三七 編, 『事業と鄕人』 제1집, 京城: 實業タイムス社 : 大陸硏究社, 1939, 501쪽.
51) 「仁川商議議員總會, 正副會頭を夫夫改選」, 『조선신문』, 1939년 5월 9일.
52) 「深見氏の快擧」, 『조선신문』, 1940년 2월 19일.

준다. 전형적인 김돈희풍 해서 대련 양식으로 표현된 9회 입선작 〈詩(楷書)〉(그림 18)에서 그런 경향을 느낄 수 있다.

와타나베 우타로(渡邊宇太郎, ?~1936)는 통감부 시절 조선에서 경찰 업무를 맡아보던 관료였다. 그는 1907년 당시 통감부 경시청 소속의 경부로 있었고,[53] 1918년부터 3년간 군산경찰서장을 지냈다.[54] 1936년 일간지에는 그의 부고를 알리는 광고가 크게 실린 바 있다.[55] 와타나베 우타로는 7회부터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행초서를 잘 썼는데, 둔중한 필압과 황정견풍 행서 필획이 어우러진 8회 입선작 〈古詩述懷〉(그림 19)에서 김돈희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림 19〉 渡邊宇太郎, 〈古詩述懷〉, 1929, 조선미전 8회 입선작



〈그림 20〉 安東貞一郎, 〈幽居詩〉, 1931, 조선미전 10회 입선작

안도 데이치로(安東貞一郎, 1861~?)는 1914년 장곡천정(현 중구 소공동)에 安東醫院을 개업하여 활동한 의사이다.[56] 안도 데이치로는 8회부터 서부에 입선하였다. 처음엔 김돈희와 전혀 다른 서풍을 구사하다 점차 김돈희풍의 특징이 가미되는 경향을 보였다. 10회 입선작 〈幽居詩〉(그림 20)에 그런 경향이 잘 나타난다.

이밖에 조선총독부 체신국 서기였던 가타오카 다쓰노스케(片岡辰之助)는 〈鄭羲下碑〉 등 북위서 위주의 임서작으로 선전 1회부터 8회까지 연속 입선하였다. 처음과 달리 5회부터 김돈희 계열의 서풍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4회에 〈蘭亭序〉 임서로 3등에 입선한 작품이 김돈희의 예서작 〈敗絮麤氈〉과 함께 이왕가에 추가로

53) 『승정원일기』, 순종 1년(1907) 11월 28일 을묘.
54) 조선총독부 편,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경성: 조선총독부, 1920, 215쪽.
55) 「광고, 正七位勳六等渡邊宇太郎儀」, 『경성일보』, 1936년 1월 9일.
56) 「醫師, 齒科醫師」, 『조선총독부관보』 498호, 1914년 3월 31일.

매입되기도 하였다.[57]

이상 언급했듯이 조선미전 서부에서 김돈희 계열의 작품을 선보인 일본인은 대부분 조선총독부 관료 또는 견고한 경제적 기반 위에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회 고위층 인사였다. 김돈희는 서부가 조선미전에서 배제된 뒤 1932년부터 새로 개설된 서도전람회에도 심사원으로 위촉되었다. 당시의 심사원으로 가쓰라기 스에지, 가타오카 다쓰노스케 등 자신의 계파에 속하는 일본인 서가들이 등장하는 등 김돈희는 서부가 조선미전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파의 확장을 꾀하며 영향력을 행세했다.[58] 제3회 서도전에서는 김돈희는 물론 『조선서도청화』를 쓴 히다이 덴라이도 심사원으로 참여하였고, 조선미전 서부에 3회 이상 특선된 자격으로 우노 소이치, 가쓰라기 스에지, 가타오카 다쓰노스케, 김진민, 손재형이 '참여직'으로 촉탁되어 무감사로 작품이 진열되며 김돈희 계파의 세력이 이어졌다.[59] 이는 조선미전에서 권력으로 작용했던 김돈희의 영향이 조선미전 폐지 이후에도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Ⅴ. 맺음말

성당 김돈희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서예가이다. 그는 한국 최초의 근대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의 제4대 회장을 지내는 한편, 조선미술전람회가 시작된 1922년부터 서부가 존속된 1931년까지 줄곧 심사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고종 때 사자관 출신으로 궁내부 소속으로 있다가 내각 주사를 거쳐 일제강점 이후 작고하기 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조선미술전람회 서부 심사원으로는 유일하게 1회부터 10회까지 전 심사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직을 유지하며 권부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큰 배경이 되었다.

그간 김돈희를 논할 때면 가장 먼저 거론되어온 것이 그의 친일 전력이다. 1910년 국권피탈 당시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을 그가 썼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곤 하였다. 그의 친일 전력은 기정사실화되어 근대기 서단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돈희의 면모를 살필 새도 없이 그의 모든 실체를 뒤덮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조약문과 관련된 그간의 전언을 확인하고 친일 전력의 프레임에 갇힌 서예가 김돈희의 전람회 시대의 공과를 드러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조약문 작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느 문헌에도 김돈희가 직접 필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조약문과 김돈희의 필적을 면밀히 대조해보았지만 역시 김돈희가 조약문을 썼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조약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많은 대한제국 내각 문서과에 김돈희를 포함한 6인이 함께 근무했으므로 이들의 필적을 찾아 다각도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57) 「李王家御買上作品愈よ決定」, 『경성일보』, 1925년 6월 10일.
58) 「書道展覽會審査員定決」, 『조선신문』, 1932년 10월 5일.
59) 「書道展審査員決る」, 『경성일보』, 1934년 10월 13일.

김돈희는 조선미전 심사원 자격으로 매회 무감사작을 출품하였다. 그의 행서와 초서는 북송 황정견의 행서를 바탕으로 당의 안진경과 손과정의 행초 서풍이 가미된 것이고, 예서는 동한의 〈장천비〉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변화를 꾀한 것이다. 특히 황정견에 바탕을 둔 그의 서풍은 조선미전에 입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며 전람회의 권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미전 서부에 이른바 황산곡체를 추종한 작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였고, 김진민과 손재형 등 국내의 전문서예가는 물론 조선총독부와 재조선 일본인 고위층 인사였던 가쓰라기 스에지와 우노 소이치 등이 김돈희 계열로 두각을 나타내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세력화는 결국 작가 정신과 창작 열망을 차단하는 도구로 작용해 서풍의 다양성을 막아섰고, '서'를 전통이라는 공고한 틀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본래 전통적 성향이 강한 서예가 근대기 미술 개념이 도입된 전람회 시대에 나아갈 길은 무엇이었을까? 한자를 텍스트로 삼아온 서예는 분명 사실적 표현을 중시하는 근대 미술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에는 자생적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일회성의 필선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질감의 線美, 조형성에 기초한 글자의 결구와 여백의 布置는 서구 미술로 표현되지 않는 동양 특유의 미적 요소이다. 김돈희의 작품에서 제시한 투박한 선질과 삐딱한 듯 보이는 예서의 조형감각은 분명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다채로운 선질과 철저한 조형원리에 입각한 문자의 표현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중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그의 이른바 황산곡체가 오히려 획일화를 조장하는 권력으로 변해 고법에 대한 해석과 창작에 대한 열의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돈희가 활동할 당시 한·중·일 서예의 경향을 보면 중국의 경우 吳昌碩(1844~1927)은 고대의 석각문자 〈石鼓文〉을 재해석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경우 구사카베 메이가쿠와 히다이 덴라이는 다양한 선질과 자유로운 포치로 임서의 새로운 경지를 구축했다. 이는 근대 미술이 정착해가던 시기에 제시되었던 작가정신의 결과로, 유감스럽게도 근대기 우리 서단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김돈희만의 과오로 돌릴 수 없다. 선본의 입수가 어려웠던 일천하고 척박한 서예 환경이 그 결과를 불러왔고, 전통적 서화관에 사로잡혀 근대적 모험에 눈을 뜨지 못한 서단 전체 구성원의 보수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근대기 서양화가 具本雄(1906~1952)은 서부가 조선미전에서 사라진 삼년 뒤 서·사군자의 회귀를 고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다.[60]

> "書道에 있어 소위 무슨 體니 무슨 體니 하여 어떠한 法帖을 좇게 됨이 書로 하여금 미술적 가치를 未得認케 되는 한낱 큰 破라 하겠으니 필자 역시 법첩은 물론 부인합니다. 書와 그 體를 창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겠지요. 右軍體니, 秋史體니 宋朝體니, 明朝體니 하고 그 창작적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비평은 법첩 임서를 금과옥조로 여긴 나머지 창작에 등한시 했던 당시 서단의 경향을 꼬집은 것이다.

60) 「第十三回 朝鮮美展을 봄」, 『조선중앙일보』 1934년 5월 30일; 한국미술연구소편,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 한국미술연구소, 2000, 381쪽.

구본웅은 書의 線을 '동양적 미의 순정'이라 표현할 정도로 線質을 서예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화가이다. 그가 지적한 필선의 다양한 질감과 문자의 조형에 대한 투철한 실험정신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땅히 갖춰야 할 서예의 지향점이었다.

〈참고문헌〉

內閣印刷局 編,『內閣職員錄』, 內閣印刷局, 1908.
조선총독부 편,『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경성: 조선총독부, 1920.
중추원조사자료 「第五節 朝鮮語辭典ノ編纂」,『朝鮮舊慣及制度調査沿革ノ調査』 第2冊, 朝鮮總督府中樞院.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u)
「韓日併合條約」(奎23018・23019),「覺書」(奎2315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성일보』,『대한매일신보』,『매일신보』,『조선신문』,『조선일보』,『황성신문』.

김은호,『書畫百年』, 중앙일보사, 1981.
장우성,『畫脈人脈』, 중앙일보사, 198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편,『근묵』,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한국미술연구소편,『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 한국미술연구소, 2000.
홍선표,『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김원익,「素筌 孫在馨 硏究」, 전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김윤경,「惺堂 金敦熙의 書藝硏究」,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정선,「조선미술전람회 서부(書部)의 제도적 고찰」,『한국근현대미술사학』 4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1.
이가라시 고이치(五十嵐公一)(저), 이중희(역),「조선미술전람회 창설과 書畫」,『한국근현대미술사학』1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347쪽.
이중희,「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윤대원,「일제가 불법, 조작한 병합조약」,『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이태진・이상찬,『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불법성의 증거들』,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영학,「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2009.
윤범모,「일제 강점하의 서예와 金瑱珉」,『동악미술사학』 9, 동악미술사학회, 2008.
전상모,「전람회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의 서예」,『동양예술』 46, 한국동양예술학회, 2020.
정병호,「일본근대문학, 예술논쟁연구(1)-『서예는 미술이 아니다』 논쟁과 근대적 예술개념의탄생」,『일본학보』 55, 한국일본학회, 2003.

高橋三七 編,『事業と鄕人』 제1집, 京城: 實業タイムス社: 大陸硏究社, 1939.
藤原楚水,『圖解書道史』 제4권, 東京: 省心書房, 1975.
比田井鴻 編,『朝鮮書道菁華』, 東京: 書學院後援會, 1931.

芸術新聞社 編,『近代日本の書』, 東京: 芸術新聞社, 1984.
奥山錦洞 著,『日本書道史』, 東京: 啓文社書店, 1927.
井原雲涯 編,『鳴鶴先生叢話』, 東京: 昭文堂, 1925.
朝鮮實業新聞社 編,『(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 京城: 朝鮮實業新聞社, 1913.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Joseon Art Exhibition and Kim Donhee

Yoo, JiBok*

Kim Donhee(1871~1937) was a calligrapher who represented the Japanese colonial era. He continued to work as a judge and exert influence over the 10 years when the Calligraphy Section survived at the Joseon Art Exhibition. During his time as a judge, he also served as a bureaucrat at the central office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His presence in the shadow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s Office was a major background for his expansion of influence in the Joseon art exhibition.

So far, it has been said that Kim Donhee personally wrote the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signed during the 1910 seizure of state power. To confirm this, the treaty was compared with the text Kim Donhee wrote in 1915. As a result, there was no evidence that Kim Donhee wrote the treaty. Rather, it was confirmed that one of the five people, including Cho Youngok, who worked with him at the time of signing the treaty, might have written it.

Kim Donhee formed his faction through the screening of the Joseon Art Exhibition. In particular, his style of calligraphy based on Huang Tingjian became a model for being selected for the Joseon Art Exhibition. As a result, his style of calligraphy acted as a power, creating a negative effect of blocking and standardizing the diversity of calligraphy.

[Keywords] Kim Donhee, Joseon Art Exhibition, Sangseohoe(A group of people who worships calligraphy), Calligraphy,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Korea, Jeonju University